

東學의 反封建思想에 관한 연구

강삼구*

목 차

I. 서론	V. 東學思想의 革命的 性格
II. 東學의 反封建性의 歷史的 背景	1. 人間 中心主義의 平等觀
1. 社會 經濟的 矛盾構造	2. 後天開闢
2. 朱子學의 世界觀의 動搖	3. 無爲而化의 歷史觀
III. 東學思想의 認識論: 至氣論	VI. 結 論
IV. 東學의 基本論理	
1. 侍天主	<참고문헌>
2. 人乃天	

I. 서론

東學思想은 조선왕조의 政治-社會的 矛盾構造에 기인하는 反封建思想과 反日-脫中華의 反帝-民族主義로 나타나고 있다. 동학은 근대의식의 목적과 결부되는 이데올로기로서 그 안에는 民族主義, 革命主義, 平等主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東學이 단지 종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정치사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동학이 갖는 實踐性, 社會變動 指向性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겠다. 이러한 면에서 동학은 1894년의 운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때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동학사상에 관한 연구는 동학이 1894년 農民運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농민운동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反帝-反封建의 성격을 동학사상의 具體化, 實踐의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다.¹⁾ 소농민을 주력으로 하여 상공업자, 중농, 부농이 참여하고 농촌지식인이 주동한 1894년의 甲午 農民戰爭은 조선 봉건사회 해체

* 政治學 博士,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 시간강사.

1) 이러한 면에서 동학의 정치사상적 의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복룡, 「동학사상과 한국 민족주의」(서울: 민음사, 1981).

의 최종적 도달점이며 또한 근대 민족 해방투쟁사의 출발점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학 농민운동의 革命性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되고 있으나 동학과 1894년 農民運動의 연관성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相反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1894년 농민운동이 韓國民族主義의 형성과 反帝-反封建의 역사적 흐름을 해석하는 시각과 모델의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그것은 反帝-反封建運動으로서의 1894년 농민운동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封建的 矛盾의 표출로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東學思想이 갖는 革命的 要素를 내포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東學 宗教運動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東學과 農民運動의 연관성에 관한 논쟁의 초점은 농민운동으로 발현된 당시의 社會的 矛盾構造와 실제로 운동을 이끌어간 세력에 대한 분석, 東學組織의 성격에 대한 연구와 동학사상 자체의 革命的 要素에 대한 연구에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학의 反帝 民族主義的 要素는 배제하며 당시 봉건사회에 대한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동학의 기본논리가 혁명적 성격을 갖는지의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1894년 농민운동에 있어서 동학의 위치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학이 封建的 矛盾構造의 打破라는 革命性을 갖는 思想體系였는가를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서는 봉건적 지배-피지배의 구조에 있어서 농민들의 위치와 농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인간관계의 실상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동학사상에 관한 연구는 종래 최재우를 중심으로하는 동학사상의 定立期, 최시형, 전봉준을 중심으로 하는 實踐期, 손병희에 의한 近代思想 受容期라는 3기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재우와 최시형에 있어서는 이 둘을 구분할 만한 커다란 사상적 변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동학의 구분은 단지 시기상의 구별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최재우, 최시형, 손병희의 사상과 실제로 운동을 이끈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등의 實踐論理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동학이 운동으로의 전개된 측면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학 그 자체의 사상적인 측면을 東經大典과 용담유사, 그리고 최재우와 최시형의 說法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것이 실천적으로 1984년 농민운동에서의 반봉건 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東學의 反封建性的 歷史的 背景

1. 社會 經濟的 矛盾構造

동학의 발생은 조선조말 封建的 矛盾構造의 深化, 즉 開港이후 官僚와 地主의 가혹한 농민수탈 그리고 西勢東漸의 위기라는 社會變動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 점에서 당시 농민에 대한 收奪構造와 제국주의의 침투가 농민을 질곡상황으로 몰아간 사정을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조선조 말기에 地方官吏와 아전들의 收奪狀況은 牧民心書에 잘 나타나 있다.

수십년 이래로 牧民官이 된 자들은 전연 일을 일답게 하지 않고 아전들은 횡포하고 외람됨이 그 극도에 달하였으니 그중에서도 戶籍이 가장 심한 것이다.... 수령은 돈만을 어루만지고 드러누워서 돈 사랑하기를 진귀한 보배인양 여기고 있으니 슬프고 아깝구나 수령이여, 差帖이 나오는 시초에 이미 뇌물을 받았으니 공사를 실행하는 날에 어찌 농간을 금할 수 있겠는가.²⁾

또한 全瑋準 供草 에는 조병갑의 탐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 보를 쌓아 붓물의 혜택을 받는 농민에게서 水稅를 받는데 上畚이면 1 두량당 2말씩, 下畚이면 1말씩을 거두어 도합 벼 700여석을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荒無地를 갈아 먹으라고 관청에서 文件을 주어 허락해놓고 밑에서는 추수때에는 稅金이라고 하면서 마구 거두어 들인 일, 부자집 2만량을 수탈한 일, 저 아버가 태인에서 郡守를 지냈는데 저 아버의 碑闕을 세운다고 하면서 천여량을 수탈한 일, 大同米를 상납할 때 도정한 정백미 16말씩을 일정한 값으로 거두는데 下等米값을 쳐서 그 剩餘利潤을 착복한 일....³⁾

당시 田稅는 가혹한 것이었는데 본래 토지에 대한 基本課稅는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으나 각종 附加稅가 허다하여 전세총액은 과중하게 되어있었던 것이다. 法定 田稅는 매결 田稅 6두, 大東米 12두, 三手米 1두 2승, 咆糧米 1두 3승, 結錢 5전 등 총계 20여두에 불과한데, 人精米, 不足米, 邑用, 京主人役價米, 傳關米, 落

2) 정약용, 「牧民心書」 第 6卷 戶典 6條, 4條, 「古典國譯叢書 38」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p. 7. 인용

3) 全瑋準 供草

庭米등이 첨가되어 많아지는데 이들 항목은 그래도 각 읍에서 稅目으로 정한 것이 이른바 計版안에 드는 것이고, 計版외의 것으로 民庫錢結畵, 新舊官刷馬價結畵, 面主人근수租등이 있어 計版내외를 통계하면 1결의 세미총액이 100두에 가까운 것이었다. 결에 대한 총세액을 결가라고 하는데 결가가 날로 늘어 전에 7,8량하던 것이 이제 50,60량이되고 심하면 70,80량에 이른 것이 갑오이전의 형세였다.⁴⁾

가히 극치를 달리고 있던 관리들의 貪虐은 공주지방의 실태에 대한 魚允中의 宣撫使狀啓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無錢者는 曷物故를 내고 曷刑配를 하고 또 약간 살만한 자는 동학이라는 명을 붙여 강제로 그재산을 빼앗았다.公主民 吳德根의 땅을 빼앗기 위하여 營其別業으로써 姦淫으로 誣告하여 진영에 뒤틀 가두어 物故를 낸다고 으르어 그재산을 빼앗고 군을 동원해 남자와 부인들을 凍天雪夜에 내쫓으니 노약자 5,6인은 죽고 村落은 폐허가 되어 草木이 위로 할 지경이었다. 公主 金顯益, 林台淳, 高成龍, 恩津 崔成淑, 洪州 林규和, 鴻山 金八端등을 姦淫으로 몰아 그 가산을 빼앗고, 牙山 金相俊에 대해서는 공주로 옮겨 가두어 강제로 기만량을 빼앗고 흑독한 형까지 가하니 金은 참지 못하여 자살하고 말았다.....⁵⁾

또한 開港이후 수출을 위한 곡물의 징수는 농민에 대한 課稅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당시 수출상품의 주종을 이룬것은 쌀과 콩이었는데 가혹하게 징수하였다. 더구나 징수된 곡물은 地方官 및 그와 결탁한 상인에 의해 상품화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왕실에 충당될 租稅의 漏水分은 결국 그 부담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封建權力的 剩餘價値 收奪體系는 田稅, 大同米등의 정세의 징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종 附加稅의 신설, 남징, 度量衡의 조작, 連帶責任制의 부당한 확대적용, 본래 饑饉對策을 위해 설치한 환곡제도의 附稅化, 臨時上納金의 강제징수, 강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관철되고 있었다.

이러한 封建的 社會制度의 矛盾이 構造的 改革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양반 지배체제와 농민의 對立的 양상은 첨예화되고 이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흥경래난, 진주민란등 계속되는 民亂으로 나타나게 되었다.⁶⁾ 朝鮮王朝實錄 哲宗 13년 5월條에

4) 金龍德 外, 「東學革命 革命鬪士 全瑋準」(서울: 東學出版社, 1976), p. 58.

5) 魚允中의 “宣撫使 再次狀啓”, 「東學亂記錄上聚語」, 130-131面.

의하면 5월 한달중에 기록된 民亂만 해도 15개 지역에 이르고 있고 難民之乘時逞頑眼無國法 이라는 귀절에서 보듯 民衆의 반란은 치열했던 것이었다.⁷⁾

한편 김용섭에 의하면 17-18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商品貨幣經濟의 농촌침투에 따른 토지의 商品化가 촉진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농민의 소상품 생산자로서의 이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農民層分解의 결과로서 貧窮農民, 流浪者가 속출하였다는 것이다. 농촌사회의 분해는 이전 封建秩序의 동요를 남게하고 階級間的 葛藤을 야기시키게 된다. 즉 그것은 地主層과 小作農民, 富農經營과 零細農經營, 被雇傭者와 雇用主사이의 葛藤으로 나타나고 있었다.⁸⁾ 그리고 봉건권력의 가렴주구와 지주 수탈의 강화는 이러한 농민층 분해를 더욱 촉진시켰으며 빈농이나 유랑민, 그리고 봉건권력의 수탈에 의해 성장이 저지되었던 소상품 생산자층의 봉건권력에 대한 불만은 점점 고양되고 있었다. 이러한 葛藤은 支配階級과 被支配階級 사이의 갈등의 속에서 해소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封建權力의 收奪속에 貧農, 流浪民 뿐만 아니라 中農, 富農, 零細商人이 모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은 한 곳으로 쫓점 맞추어질 수 있었고 동학운동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階層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聯合關係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동학운동의 경우 빈농이 중심이 되었지만 많은 부농, 중농, 중소상인이 참여하고 殘班出身의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던 것이다.⁹⁾

위와같은 時代的, 社會構造的 상황속에서 東學이 창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학의 人間 中心主義는 革命性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당시 민란의 발생상황에 대해서는 김용섭, "전봉준의 공초분석", 노태구 편, 「동학혁명 연구」(서울: 백산서당, 1982), p. 157. 참조.

7) 「朝鮮王朝實錄」第 48卷, 650-652面.

8)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문제와 실학" 「동방학지」 16, p. 54.

9) 갑오농민전쟁의 主體를 논하는 경우 그것은 단순히 農民大衆을 일반으로 하여 파

악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農民層 分解가 격심하게 진행되던 당시의 社會經濟的 상황과 농민군 내부의 복잡한 각축을 고려할 때, 단순히 농민 대중 일반으로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貧農層과 富農層은 똑같이 농민군의 주체를 형성하면서도 양자의 이해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矛盾 對立하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조정달, "동학 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갑신 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중운동」(서울: 청아, 1983), p. 256. 그러나 사실상 농민운동이 政治體制에 대한 도전이었고 聯合關係는 葛藤을 내포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양대 階級간의 矛盾對立은 封建秩序에 대한 저항이라는 차원에서 덮여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양대계급간의 矛盾對立은 부차적인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朱子學的 世界觀의 動搖

조선사회는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의 엄격한 身分制 社會였고 朱子學의 差別倫理가 이것을 뒷받침하였다. 상하의 엄격한 신분적 차별에 의한 봉건적 계급질서 수립에 그 근본 목표를 둔 지배계급의 지배권 옹호 사상으로서의 유교사상을 생활 이념으로 하는 사회체제가 강요되었던 조선사회는 횡적으로는 분파성의 사회구조를, 종적으로는 권위성이 지배하는 계급사회로 굳어지게 되었다. 특히 양반을 중심으로 한 지배계급 내부의 정권 쟁탈전은 물론, 왕위 계승문제를 둘러싼 분파성은 사회적 혼란과 추태를 연출하여 일반 서민과의 계급적 대립속에서 계급질서의 유지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지배자계급과 피지배자 계급간의 공동운명체적 민족의식이란 희박하였으며, 일반서민들은 정치로부터는 완전히 소외된 채 한갓 지배자 계급의 수탈대상이 되었을 뿐이었다.

봉건적 사회상황은 비인간적 차별구조를 유지 가능케 했으며, 수동적 입장을 강조하는 구조는 관리들에 의해 농민이 수탈당하는 경제구조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주자학 이념체계에 의해 정당화 되었고 영속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반지배의 신분질서는 17세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종래의 폐쇄적 신분구조의 급격한 해체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교적인 윤리관 위에 구축된 조선사회의 양반층의 절대적인 권위가 상실되어간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반의 격증으로 인해 더 많은 역의 부담을 지게된 농민은 양반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점차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

동학발생 당시의 사회적 성격은 封建秩序의 동요와 이를 반영하는 封建社會의 指導理念으로서의 朱子學의 지도력의 약화로 특징지어진다. 封建的 사회질서의 혼란은 貴族-閥閥政治와 勞道政治로 인해 주자학적 지도이념에 입각한 양반 지배체제가 약화되는 반면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 手工業, 鑛工業의 발전에 따른 민중경제의 향상 및 實學思想을 통한 민중문화의 발달이라는 모순된 발전과정에 기인하고 있다.¹⁰⁾ 이같은 양반 지배체제의 약화와 民衆의 主體的 역할의 확대라는 상반된 발전과정은 필연적으로 社會變動의 내부적 葛藤要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社會的 矛盾의 표면화에도 불구하고 정조시대에 있어서 實學思想의 반영을 통해 貴族的-閥閥的 정치세력을 배제, 왕권을 강화하고 상공업의 권장

10) 강만길, 「한국근대사」,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p. 10.

을 통해 모순을 해결코자 하였으나 곧이은 보수적 정치세력의 반발에 의한 勢道政治의 성립으로 실패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순의 해결을 위한 構造的 改革은 전혀 시도되지 않은 채 武力的 억압만이 계속되었다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은 당시 조선의 정신적 상황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양반 지배체제의 지도이념으로서 朱子學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고 도참등 民間信仰이 광범위하게 민중의 정신세계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상황은 구체적으로 儒敎의 타락과 함께 불교의 쇠퇴와 迷信化, 道敎의 횡행 그리고 여타 민간신앙의 확산으로 나타났다¹¹⁾ 이러한 정신적 타락현상이 곧 최재우의 東學 창도의 직접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최재우에 있어서 유, 불, 선 그리고 기타 民間信仰의 영향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에 있다. 당시의 정신적 타락상을 儒敎, 佛敎, 道敎등의 비판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동경대전, 용담유사의 내용 가운데에는 유, 불, 선의 사상에 입각하여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있기 때문이다. 최재우는 堯舜之治 不足施 孔孟之德 不足言¹²⁾ 이라고 하여 조선조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사회윤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용담유사의 권학가에서는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는가' 라고 하여 유교, 불교의 무력화를 지적하면서도 같은 곳에서 '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 등 유교적 논리에 입각하여 당시의 道德的 墮落을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도참등 민간신앙의 타락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것을 '괴이한 동국참서'¹³⁾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도교 및 정감록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렇게 볼때 최재우는 傳統思想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통사상에 대한 최재우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최재우는 유교, 불교, 선의 가치에 대한 물음에 답하면서 사자의 죽엄과 개의 죽엄을 들어 비교하여

11) 김의환, "동학사상의 사회적 기반과 사상적 배경", 「한국사상」 제 6집 (1963, 8), 제 7집 (1964, 4). 참조

12) 용담유사, 몽중노소 문답가.

13)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14) 용담유사, 용담가.

무슨 진리든지 그시대 사람에게 산 혼을 넣어줄 수 없게 되고 그 시대의 정신을 살릴 수 없게 되면 그는 죽은 송장의 도덕이지요, 이 시대는 佛法이나 儒法이나 기타 모든 묵은 것으로는 도저히 새인생을 거느려 나갈수 없는 시대이지요, 다만 요할것은 죽은 송장의 속에서 새로 산 혼을 불러 일으킬만한 無極大遠을 파지하고 新天, 新地, 新人을 開闢하여야 하지요.¹⁵⁾

라고 말함으로써 儒, 佛, 仙의 사상은 이미 당시의 시대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儒, 佛, 仙의 본래적 진리를 인정하여 동학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동학은 원래 유도, 불도, 선도 아니로되 유, 불, 선은 天道의 한 부분이니라 儒의 原理와 佛의 覺醒과 仙의 陽氣는 天道의 자연한 품성이며 천도의 고유한 부분이니 우리 道는 그 無極大遠을 잡은 자이다.¹⁶⁾

이렇게 볼때 최재우는 儒, 佛, 仙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가장 큰 道로서 東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있다. 즉 당시 조선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은 묵은 道인 유, 불, 선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東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동학발생의 사상적 배경으로 西學 즉 天主教의 전래를 들 수있다. 최재우는 당시의 西勢東漸에 의한 위협을 인식하고 天主教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원갑 경신년에 전해오는 말이 요망한 서양적이 중국을 침범해서....¹⁷⁾

서양사람들이 도와 덕을 잘 체득하여 그들이 조화를 부릴때는 무슨 일이건 못하는 것이 없고이래서 중국이 망해 없어지면 우리나라도 이어 같은 화를 입을 것이 걱정스럽다.¹⁸⁾

서양의 도는 우리 도와 비슷하면서 서로 다르다.나는 역시 동쪽에서 도를 받았으므로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은 동학이다.¹⁹⁾

15) 이돈화, 「天道敎 創建史」 제 1편 (서울: 천도교 중앙 종리원, 1933), p. 34.

16) 앞의책, p. 34.

17) 용담유사, 권학가.

18) 동경대전, 논학문.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동학은 서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재우의 사상은 儒, 佛, 仙의 타락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유교의 五倫五常의 人倫道德, 즉 人間性의 회복을 수용하였으며, 佛敎의 말폐를 제거하면서 호국적인 輔國安民의 인류구원의식을 적용하고, 도교의 不老長生의 안일함을 타개하고 地上天國의 後天開闢이라는 미래관을 제시하고 있다¹⁹⁾는 점에서 전통 사상의 비판적 수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동학이 自然法的 순환사관이라는 전통적인 동양의 역사관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의 종교이면서 기독교와 같은 唯一神이 아닌 多神 또는 汎神論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에서 고유한 동양적 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Ⅱ. 東學思想의 認識論: 至氣論

최재우는 天과 人을 또 天과 物을 혼연일체로 보며 우주 전체에 대하여서도 物心兩元的 존재를 부정하고 至氣의 일원적 존재로서 규정한다.²⁰⁾ 동학의 기본사상이 神과 人間과 自然의 관계를 對立的이 아닌 하나의 통일적인 관계로 본다는 의미에서 世界와 宇宙에 대한 동학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一元論的 唯物論이다.

최재우는 至氣를

허령창창하여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고 어느 일에 명령하지 않는 데가 없어.... 그 산 기운이 한울과 땅의 뿌리가 되어 있으며 일만 물건이 지기의 속에서 나며 지기의 속에서 자라며 지기의 속으로 돌아 가나니 말하자면 지기는 천지의 뿌리며 만물의 어머니이며 생명이니 만물이 그리로 나고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나 이 또한 혼원의 일기로서 결코 두가지의 물건이 아니니라.²¹⁾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至氣란 萬物의 生成과 發展, 그리고 消滅하는 힘의 근원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을 주관하는 일종의 自然法 또는 절대자이다.

19) 동경대전, 논학문.

20) 임현희, "수운의 개벽사상", 「신인간」 제 415호 (1984, 1), p. 31.

21) 김득황, 「한국사상사」 (서울: 남산당, 1963), p. 229.

22) 이돈화, 앞의 책, 제 1편, 24면.

이러한 사물의 근원적인 힘 또는 본질로서의 氣는 그 存在形態에 따라 內有神靈 또는 外有氣化로 나타난다. 먼저 至氣의 內有神靈한 형태가 곧 侍天主의 개념이다. 따라서 수운의 천주개념은 至氣의 인격적 표현이라할 수 있다.²³⁾ 수운에 있어서 至氣가 곧 천주라는 의미는 그의 주문 ‘至氣今至 願爲大君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에서 잘 나타난다. 즉 원하여 지기가 사람에 이르러 서로 合一하는 상태가 곧 侍天主의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絕對法則인 至氣는 인간에 內在함으로써 지기에 의한 동학의 一元論적 統一觀은 한울과 인간의 관계를 분별을 이루는 대립적인 두 客體, 또는 主體와 客體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內有神靈한 至氣는 外有氣化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관계 역시 통일적인 관계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동학은 한울과 인간과 자연을 지기를 媒介로 하나의 통일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학의 일원론적 인식은 강재언의 지적에 의하면 ²⁴⁾서경덕의 氣一元論과 비슷하다. 즉 동학의 일원론은 정통 주자학의 理氣說에서 氣에 더욱 치중하는 일원론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氣一元論의 인식에 따라 동학사상은 唯物論의 성격을 띠게 된다. 동학사상의 유물론적 성격은 한울과 인간과 자연을 통일적 관계로 보는 수운의 일원론적 태도로 비롯되며, 이는 해월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해월은 以天食天에서

物物이 곧 한울의 표현이니... 天地神明이 物로 더불어 推移하는 자라 物을 食함은 天을 食하는 줄로 알라.²⁵⁾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해월의 唯物論的 認識은 三教論의 敬物²⁶⁾, 그리고 待人接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돈화는 동학의 유물론적 인식에 따른 神觀을 汎神論的 有神主義라고 부르고 있다.²⁷⁾ 김경재는 수운의 侍天主 개념에서 수운의 신은 세계와 대립되거나 만물에 초월해 있는 한 인격은 아니지만 그는 인격이하도 아니요 인격적인 주재자로 본 것은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운의 超越的

23) 김경재, “최수운의 侍天主와 歷史理解”, 『한국사상』 제 15집, p. 219.

24) 강재언, 『한국 근대사상사 연구』 (서울: 한울, 1983), p. 120.

25) 이돈화, 앞의 책, 제 2편, p. 18.

26) 앞의 책, p. 16.

27) 이돈화, “人乃天의 基本敎理”, 『開闢』 제 4호, p. 48.

主宰者로서의 천주가 해월, 의암에 이르러 좀더 汎神論的 색채가 두드러져 '物物天 事事天', '養天主'의 표현으로 나타났고 이돈화, 백세명에 의해 一元論的 進化神論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이러한 동학사상의 유물론은 개개의 物自體를 곧 자연의 본질로 보는 그러한 유물론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至氣와 合一하는 한에서만, 즉 한울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적 관계인 한에서만 그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수운과 해월의 唯物論的 인식은 汎神論 또는 일종의 無神論的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唯物論的 인식은 하나의 종교로서 동학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오히려 당시 조선 民衆의 경제적 고통에 의한 물질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을 갖는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민중의 의식에의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수운과 해월의 一元論的 唯物論을 중심으로 동학의 인식론을 살펴왔다. 이제 이러한 일원론적 유물론의 인식을 통해 侍天主, 人乃天, 後天開闢의 동학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는가를 살펴보겠다.

IV. 東學의 基本論理

1. 侍天主

수운은 格物致知의 지적 탐구면은 부정하고 유교적인 교양교육 없이도 오직 守心正氣의 내면적 수양만으로도 누구나 道成德立하여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심정기의 수양법은 모든 사람이 천주라는 보편자를 주체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서민들이 시천주 신앙을 통해 우선 인격적으로 자기동일성을 얻고 자아를 자각하여 個人格의 존엄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인간 평등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와 같은 여타의 종교가 갖는 일신론적 태도와는 다른 동학의 특이한 점이라할 수 있겠다. 수운의 侍의 개념은 그의 주문해석에서 內有神靈, 外有氣化 그리고 各知不移의 세가지 뜻이 있다.²⁹⁾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內有神靈이란 만물의 본질인 지기가 인간의 내면에서 직접

28) 김경재, 앞의 논문, p. 218.

29) 이돈화, 앞의 책, 제 1편, p. 25.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로 外有氣化란 지기가 자연현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로 各知不移란 온세상 사람들이 각자가 깨달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³⁰⁾

따라서 수운의 侍天主란 결국 하느님을 몸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일종의 범신론적 성격을 띠는바 이는 해월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해월은 養天主說에서

한울을 양할줄 아는 자라야 한울을 모실줄 아나니라 한울이 내 마음 속에 있음이 마치 종자의 생명이 종자속에 있음과 같으니 종자를 땅에 심어 그 생명을 양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은 도에 의하여 한울을 양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사람으로도 한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종자를 물속에 던져 그 생명을 멸망하게 하는 것과 같아야 그러한 사람에게는 종신토록 한울을 모르고 살 수 있나니 한울은 양하는 자에게 한울이 있고³¹⁾

이는 수운의 侍天主를 보다 구체적인 汎神論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해월은 以天食天에서

천지의 大法이라 物物이 또 하나의 동포이며 物物이 또 한울의 표현이니 物을 공경함은 한울을 공경함이며, 한울을 養하는 것이니 천지신명이 바로 더불어 推移하는 자라 제군은 物을 食함은 天을 食하는 줄로 알며 人이 來함을 天이 來하는 줄로 알라.³²⁾

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자연을 곧 신과 동일시하는 일종의 自然神論을 의미한다. 다시말해서 以天食天이란 한울의 氣化作用으로 한울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해월의 養天主와 以天食天은 곧 수운의 侍에 대한 두가지 의미, 內有神靈과 外有氣化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唯物論的 해석이다. 해월에 있어서 侍天主의 과정은 인간의 내면적인 과정으로서 養天主와 외면적인 과정으로서 以天食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사람은 스스로 한울을 내면적으로 養함과 동시에

30) 최동희, “동경대전(해설)”, 『한국명저대전집』 (서울: 대양서각, 1973), p. 273.

31) 이돈화, 앞의 책, 제 2편, p. 80.

32) 앞의 책, p. 18.

以天食天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곧 한울과 인간과 자연의 同一觀를 의미한다. 水雲의 侍天主는 계층에 관계없이 만인이 각기 보편자인 천주를 내면화 시킴으로써 양반과 상민, 대인과 소인의 본질적인 불평등을 부정하고 만인이 군자가 될 수 있는 인간 평등의 인식을 보임으로써 당시 점차 해체되어갈 수 밖에 없었던 봉건적 신분 제도에 대한 공격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해월은 수운의 시천주를 세속화 시켜 만물에 천이 내재하여 있고 만물이 곧 천이라고 하는 범천론을 제기하고 있다. “물물천 사사천”은 만물이 만사에 천이 내재하여 인간 세계에서도 만인이 상하 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두 천이므로 인간을 포함해서 만물이 곧 천이라는 것이다. 수운의 시천주가 인간에 국한되어 있었고 해월의 경우에는 그것이 만물에 확장되고 있었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평등의 논리는 동일하게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³³⁾

2. 人乃天

동학사상의 근간을 人乃天이라 규정한 것은 의암기에 이르러서 였으나³⁴⁾ 人乃天의 내용은 수운에 대한 해월의 해석에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人乃天의 논리적 근거는 앞에서 본 侍天主의 개념에 있기 때문이다.

해월의 인내천 사상은 그가 어느 도인의 집에서 그 집 며느리의 베를소리를 듣고 그 주인에게 “그대의 며느리가 베를 짜느냐 한울님이 베를 짜느냐”³⁵⁾라는 물음을 통해 그 며느리가 곧 한울이라는 표현을 한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해월은 수운의 侍天主 개념은 근거로 하여 사람이 곧 한울이라고 전제하고

유아 또는 사람은 모두 한울과 같으므로 마음을 떠나 천주를 생각할 수 없으니 사람을 버리고 한울을 공경하는 것은 꽃을 따버리고 과실을 바라는 것과 같다.³⁶⁾

33) 신기현, “조선조 평등에 관한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년 8월), p. 152.

34) 김영작, “동학사상과 농민봉기”, 노태구 편, 앞의 책, p. 81.

35) 이돈화, 앞의 책, 제 2편, p. 36.

36) 앞의 책, pp. 36-37.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사람은 한울이니라 그럼으로 사람 섬기기를 한울 같이 하라”는 수운의 말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월의 인내천 사상은 수운의 侍天主, 吾心即汝心, 天心即人心, 天人如一 등의 개념을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운과 해월의 이러한 인내천 사상은 당시 조선의 封建的 階級 秩序의 矛盾을 첨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운은 人乃 天사상을 봉건적 계급질서의 타파를 의미하는 平等觀으로 발전시켜 계급적 차별을 제거한 하나의 미래관으로서 後天開闢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V. 東學思想의 革命的 性格

1. 人間 中心主義의 平等觀

동학의 인간 중심주의는 한울과 사람과 자연을 통일적 관계로 인식하는 일원론에서 人乃天을 그 중심으로 전개됨을 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운의 侍天主, 天人如一 또는 해월의 養天主, 以天食天의 개념이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의미하며 따라서 至氣 또는 한울과 자연은 모두 인간과 관계하는 한에서 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최재우의 天人如一觀은 인간존중, 인간 평등주의를 나타내는 것인바 이것은 당시 신분질서의 모순의 지양, 양반의 特權的 社會秩序의 타파라는 인간평등의 사회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울님 사람낼때 늑없이는 아니내네
우리라 무슨 팔자 그다지 기험할꼬 부
하고 귀한 사람 이전 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 사람 오는 시절 부귀로세.³⁷⁾

약간 어찌 수신하면 지벌보고 가세보아 추세해서 하는 말이 아무는 지벌도
 좋거니와 문필이 유여하니 도덕군자 분명하고 모물염치 추존하니 우습다 저
 사람은 지벌이 무엇이게 군자를 비유하며 문필이 무엇이게 도덕을 의논하노³⁸⁾

37) 용담유사, 교훈가.

38) 용담유사, 도덕가.

또한 수운은 東學의 道를 설명하는 가운데 인간의 불명등은 人僞에 의한 계급적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道는 地閥을 보는 것이 아니니라 地閥이 무엇이게 末世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더욱이 말세사람들이 자기네의 物慾之心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백성을 압제하는 못된 버릇이아니냐 道德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울님의 바른 천성을 거느리는 것이니 만일 貴賤을 논한다면 地閥은 천한 것이요 도덕은 귀한 것이니라.... 또한 우리 道는 문필을 숭상하는 道가 아니라 문필도 귀하지만 문필이란 것은 그 실 사람의 적은 제조에 불과한 것이요.³⁹⁾

라고하여 당시 門閥, 地閥을 근간으로하는 양반 지배체제의 계급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근대적 평등관을 제시한 다음 “우리라 무슨 팔자 고진감래 없으소냐 흥진비래 무섭더라 한탄말고 지내보세” 라고 말함으로써 被支配階級の 좌절감을 혁명으로 승화시킬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동학사상의 인간 중심주의는 해월의 向我設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해월은 그의 교설에서 제사에 임할 때 “向我設位可乎아 向壁設位可乎아⁴⁰⁾” 라고 질문하면서 그자신은 向壁設位를 폐하고 向我設位식을 거행하였다고 한다. 해월은 向我設位를 “직접 神人合一의 現을 표하는 것이며 천지만물이 네 몸에 갖추어있는 이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월은 向我設位를 실시해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모가 죽은 후 精靈이 어디갔으며 또 선사의 精靈이 어디 있는가 생각컨데 부모의 정령은 자손에게 전해지고 선사의 정령은 제자에게 강림되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나 선사를 위해서 享禮를 지낼때 그 位를 반드시 自我를 향해서 설치함이 가하지 않겠는가 누가 생각하든지 사후문제가 없다면 모르되 만일 있다면 미래의 인간을 버리고 그 精靈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는가.⁴¹⁾

따라서 해월에 있어서 천인합일 즉 인내천은 양천주, 이천식천이라는 이중적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의 의식적 표현이 곧 向我設位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학의 人乃天思想은 인간중심 주의이며 이는 東學의 평등관으로

39) 이돈화, 앞의 책, 제 1편, pp. 36-37.

40) 앞의 책, 제 2편, pp. 75-77.

41) 오익제 편, 「천도교 입문」(서울: 천도교 중앙본부, 1981), pp. 59-60.

나타난다. 또한 해월은 수운의 階級秩序否定的 평등관을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한울이라 평등이요 차별은 없나니 사람이 인위로서 귀천을 분별함은 곧 천의에 어지는 것이니 제군은 일절 賈賤의 차별을 철폐하여 선사의 뜻을 잇기로 맹세하라⁴²⁾.

해월은 반상의 구별은 사람이 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로부터 우리 도 안에서는 일체 반상의 구별을 두지 말라. 우리나라 안에 두가지 큰 폐풍이 있는 데 첫째는 적서의 구별이요, 다음은 반상의 구별이다. 적서의 구별은 집안을 망치는 근본이요, 반상은 나라를 망치는 근본이다⁴³⁾

이러한 수운과 해월의 평등관은 곧 侍天主의 개념을 근거로 도출된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한울을 모시고 있음으로 해서 곧 한울이 되며, 또한 한울인 인간은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해월의 평등관은 各人の 평등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남녀간의 평등에도 적용된다. 그는 內修道文 제 1절에서

집안 모든 사람을 한울같이 공경하라 며느리를 사랑하고 노비를 자식같이 사랑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한울님이 노하시나니라.⁴⁴⁾

이렇게 볼때 해월의 평등관은 당시 階級的 차별의 矛盾認識 뿐만 아니라 일종의 道德的 嘗爲論으로서 이러한 계급적 차별은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東學의 平等觀은 당시 양반 지배체제의 붕괴에 따른 신분질서의 동요를 첨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관은 동학 농민운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바 폐정개혁안이 그것이다. 그 안에서는 지배-피지배의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의 성격을 반영한 봉건적 사회 신분구조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즉 노비, 천인에 대한 해방요구는 인간 기본권에 있어서의 尊卑의 부정으로서 유교적 봉건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고양되어 가는 평등의식의 단적인

42) 이돈화, 앞의 책, 제 2편, p. 7.

43) [天道教經典], 「海月神師法說」, 布德編

44) 이돈화, 앞의 책, p. 40.

표현이었던 것이다. 당시 당시 농민군의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집강소는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사회 신분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전정, 군정, 환정의 삼정을 임의로 개혁하였다. 이것은 농민혁명에 의한 자율적인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집강소를 통한 농민통치는 양인과 천민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할 것이다.

2. 後天開闢

동학은 人乃天의 인간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당시 조선민중을 社會的,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는 實踐論理로서 後天開闢의 미래관을 제시한다. 동학에서 제시한 운명관, 즉 후천개벽관은 지금까지의 先天이 끝나고 後天이 시작함으로써 인생이 개조되고 인간의 이상사회가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와 이상사회가 금일부터 전개된다는 관념은 오랫동안 절망과 고뇌와 불안속에서 살아오던 민중들에게는 희망과 동경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시운관은 당시 사회와 시대에는 적용한 종교이념으로 민중의 귀의를 얻기에는 가장 손쉬운 것이었다.⁴⁵⁾ 이러한 면에서 수운의 後天開闢은 봉건적 사회질서의 모순을 부정하고 사회의 構造的 改革의 실현을 주장하는데에서 그혁명적 의의를 갖는다.

수운은 “안타깝구나 금세에 있어서 사람은 아직도 시운을 모르는구나”⁴⁶⁾ 라고 말함으로써 後天開闢의 도래를 암시하고 後天의 도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이재궁궁 어찌알고 천운이 들렸으니 근심말고 돌아가서 윤회시운 구경하소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것이니⁴⁷⁾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없는 무극대도 이세상에 날것이니 너
는 또한 연천해서 역조창생 많은백성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에 불것이니 이세
상 무극대도 영세무궁 아닐런가⁴⁸⁾

전세임진 몇해런고 이백사십 아닐런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
가⁴⁹⁾

45) 김득황, 앞의 책, p. 213.

46) 용담유사, 교훈가.

47)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48)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수운의 後天開闢은 先天 즉 下元甲과 後天 즉 上元甲의 구분으로 이루어진다. 下元甲이란 당시 조선 민중의 고통받는 상황을 의미하며 上元甲 즉 後天의 시대는 하늘이 직접 인심에 강령하는 시대, 말하자면 사람과 하늘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결합한 시대이다. 수운이 인식하는 중세적 모순을 지양하고 侍天主, 人乃天을 통해 天人合一 그리고 인간중심주의의 평등관이 완전히 실현된 새로운 사회인 것이다. 수운은 後天의 신분적 질서의 변화를

부하고 귀한 사람 이전시절 빈천이요 빈하고 천한사람 오는시절 부귀하리⁴⁹⁾

라고 설명한다. 수운은 당시의 조선사회는 괴질운수에 처해있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矛盾構造로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민중에게 곧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낙관적 혁명사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운의 後天開闢은 고통과 질곡 속의 민중에게 下元甲의 先天이 끝나고 後天, 즉 민중의 소외, 고통이 해소될 理想社會가 곧 도래한다는 희망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혁의 사상속에는 부정된 이 씨왕조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개혁에 의한 태평성대가 돌아 온다고 보는 安民의 지상천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동학의 후천개혁의 세상이 지상천국인 까닭은 동학이 지배하는 후천의 세상에 사는 개개가 지상 신선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할것이니 지상신선 네아니냐⁵⁰⁾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동학의 후천개혁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後天開闢이 결코 現實逃避的 來世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수운이 地上에서의 後天開闢을 주장하고 있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동학의 후천개혁의 실현이 곧 地上天國인 것은 동학이 지배하는 후천의 세상사람들이 지상신선이라는 데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⁵¹⁾

49) 용담유사, 안심가.

50) 용담유사, 교훈가.

51) 용담유사, 교훈가.

52) 김영작, 앞의 논문, p. 77.

그런생각 두지말고 정심수도 하였어라 시킨대로 시행해서 차차차차 가르치면 무궁조화 다던지고 포덕천하 할것이니 차제도법 그뿐일세 법을정코 글을지어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 할것이니 지상신선 네아니아

따라서 동학의 後天開闢思想은 하나의 미래관으로서 불교 또는 기독교적인 내세관이 아닌 도덕적 당위성을 띠는 現實的 實踐課題인 것이다.

지상천국이란 동학사상의 목표로서 구축하려는 미래상이며, 그것을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 천운순환론에 의한 후천개벽의 사상이었다. 그리고 그 희망적인 미래상은 그것을 구성한 논리와 함께 현실을 비판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유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동학의 천운순환론은 그 자체로서는 전적으로 비작위적 자연의 논리였지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숙명적 비관론으로서가 아니고, 현실 부정의 논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조의 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조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신선 사상을 내세움으로써 체제내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재양식을 문제삼아 계층적 신분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이 동학의 사회사상속에 담겨 있는 기존 질서에 대한 개혁의지는 차별적 신분제를 천인합일의 평등사상으로 극복하고자 한 반봉건적 개혁사상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시운관에 의한 개혁사상은 새로운 질서체제의 현실을 추구, 지향한 혁명적 사회사상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같은 동학의 安民의 사회사상을 당시 불안정한 의식정향의 표류속에 방황을 거듭하고 있던 피지배계층을 반봉건적 안민의 근대의식으로 결합시켜 나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1860년-1893년 간의 동학교단 활동은 물론 1894년 -1895년의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의 반봉건적 혁명이념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었던 체계적인 사상의 원천으로서의 초임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동학의 後天開闢사상은 하나의 미래관으로서 동학이 인식하는 중세적 모순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학사상의 혁명성 여부를 논증 또는 반박하는 중요한 쟁점은 中世的 矛盾을 부정하는 현실 부정 논리로서의 동학사상이 아니라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후천 즉 地上天國에 이르는 과정, 즉 동학사상의 역사관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다음에는 중세적 모순의 부정 논리로서 無爲而化的 역사관을 통하여 동학사상의 혁명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53) 용담유사, 교훈가.

3. 無爲而化의 歷史觀

동학사상에 있어서 無爲而化는 後天開闢을 실현하는 동학의 역사관으로서, 자연순환법칙으로 자연, 인간, 역사등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道敎的 自然循環法則이다. 아문튼 동학은 지상천국의 실현과정을 무위이화의 법칙에서 구하고있다. 수운은 造化 즉 無爲而化⁵⁴⁾라고 함으로써 만물이 생성, 발전, 소멸하는 법칙이며 동시에 하나의 역사관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학의 無爲而化는 至氣의 운동과정과 동일하다. 수운은 至氣를 만물의 본질로 보고 지기의 산 기운이 한울과 땅의 뿌리가 되어있고 일만 물건이 지기의 속에서 나며 지기의 속으로 돌아가나니 말하자면 至氣는 천지의 뿌리며 만물의 어머니며 생명이니 만물이 그리로 나고 그리로 돌아 가는 것이니 이 또한 渾元의 一氣⁵⁵⁾라고 한데서 도교의 무위이화의 자연순환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종의 궁극적인 섭리로서 지기에 의해 만물이 生成, 發展, 消滅하는 과정이 곧 無爲而化인 것이다. 강재언은 동학의 무위이화의 역사관을 다음과 같이 두가지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물을 고정 불변의 것으로 보지 않는 進步的인 측면과 둘째 폭력에 의한 現實變革을 부정하는 자연성장론적인 측면이다. 따라서 無爲而化는 사물을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동태적인 우주관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연성장론에 머물음으로써 적극적인 變革運動의 전개를 배제하게 된다.⁵⁶⁾는 것이다.

그러나 강재언의 무위이화에 대한 해석은 동학의 무위이화를 단순히 도교적인 무위이화의 의미로 본다는 데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수운은 도교의 무위이화의 자연순환론적인 歷史法則에 머무르지 않고 先天과 後天, 下元甲과 上元甲을 구분함으로써 역사의 전환점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학사상의 무위이화의 역사관은 易에 기초한 순환사관이면서도 원형적인 역사의 순환고리를 끊고 역사를 두 시대로 나눈다는 점에서 도교적 순환론과 구별되는 차이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⁵⁷⁾ 신일철은 동학의 無爲而化를 老莊思想과 비교하여 만일 수운이 장자의 무위이화만 고집하고 노자의 이른바 永遠不移의 道만을

54) “造化者，無爲而化也”，東經大典，論學文.

55) 東經大典，論學文.

56) 강재언, 앞의 책, pp. 126-127.

57) 김경재, 앞의 논문, p. 224.

주장했다면 無往不復의 원환상태는 조화와 안식만을 의미하고 영원한 정지요, 無變化이므로 결국 역사는 없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운은 당시의 사회상을 不順天理 不順天命하는 亂世로 간주하고 천리와 천명에 의한 반역을 기준으로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天命思想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수운의 역사관은 단순한 陰陽五行의 자연적 필연의 과정이나 식물적인 운명의 윤회가 아닌 順天의 道德的 當爲性을 가진 역사의식을 기본으로하는 것이다.⁵⁸⁾ 이렇게 볼때 수운의 역사관은 道敎의 無爲而化의 자연순환론에 정감록적 開闢思想이 더해진 고유한 혁명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운의 역사관은 해월에 이르러 중세적 신분질서의 부정을 의미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평등관을 더욱 구체화시킴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현실 부정의 논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VI. 결 론

1860년 4월의 조선의 사회가 최제우에게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인식되었다. 즉 당시 조선 사회는 대내적으로는 봉건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 표출되어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위협속에서 민족을 보전해야할 위기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도된 동학은 조선의 근대화로의 방향속에서 농민중심, 민족중심의 성격을 내포하면서 위기상황에 대처, 극복해 나가고자한 것이었다. 동학이 실천적 윤리로 내세운 보국안민은 당시의 시대적 요청으로서 민생의 문제와 민족 보전의식의 강조로서 반봉건과 반제국주의로의 의식의 발전의 시발점을 제시한 것이었다.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성립한 동학은 민족-민중종교로서 당시 허물어져 가던 조선사회의 통합기능을 종교적 교리를 통해 아래로 부터 수행하려는 시도였으며, 천인합일설에 근거하여 광제창생을 현세화시킴으로써 동학의 윤리와 현세적 욕구를 결합하여 사회개혁의 모티브로서 전환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었음을 보인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侍天主, 人乃天, 後天開闢을 통해 전개되는 동학의 人間觀, 歷史觀을 一元論的 唯物論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동학사상이

58) 신일철, "수운의 역사의식", 「한국사상」 제 12집 (1978), pp. 31-32.

철저하게 農民의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 수운과 해월은 당시 조선의 중세적 사회질서의 혼란, 계급적 신분질서의 동요, 경제적 상황을 구조적일 뿐만 아니라 歷史的인 矛盾으로 인식하고 이의 필연적인 改革意志를 後天開闢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학사상은 전통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양사상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汎神論的 개념을 통해 一元論的 唯物論의 인식태도를 갖게되는 것이다. 특히 동학의 一元論的 唯物論은 侍天主, 人乃天의 개념을 통해 중세적 신분질서의 부정이라는 인간중심주의적 평등관을 제시하고 있다. 동학은 주자학 이념에 의해 보장받는 신분질서의 차별적 구조와 그 차별적 구조의 상위에 있는 소수 지배계층이 향유하는 사회로부터 기존의 사회관계에서 압박받는 다수의 권익이 보장받는 평등적 구조의 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동학의 평등관은 신분질서의 부정뿐 만 아니라 중세적 봉건질서 자체를 부정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중세적 봉건질서의 부정이라는 현실 부정의 논리는 歷史觀 또는 變化觀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동학사상의 혁명성은 중세적 봉건질서의 모순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학의 後天開闢을 전제로하는 無爲而化의 역사관에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학사상은 단순히 矛盾의 認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道德的 當爲論에 입각한 모순의 부정 즉 극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의 後天은 森羅萬象의 질적 변화와 성취를 동반한 역사적이면서도 철저하게 地上天國의 道德的 人類社會 共同體이며, 後天社會의 실현과 성취를 위해서는 어떠한 초월적 능력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않는 즉 至氣의 최고적 표현인 인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同歸一體하는 현실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 부정성이라는 혁명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사상이 갖는 현실적 한계성은 동학사상 자체의 혁명성의 不在가 아니라 그 혁명성을 실천하는 實踐的 論理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동학이 하나의 종교로서 갖는 사상적 한계이다. 따라서 동학사상이 反封建的 혁명사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학이 인식하는 封建的 矛盾구조의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갖추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더구나 東學思想은 實學思想에서처럼 社會的, 經濟的 矛盾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사상은 동양의 傳統的 思想에 입각하여 당시 조선의 時代的 限界를 극복하고자한 혁명적인 사상으로서의 가치는 잃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天道敎經典.
 朝鮮王朝實錄.
 金龍德 外, 「東學革命 革命鬪士 全準準」(서울: 東學出版社, 1976).
 東經大典.
 魚允中の 「宣撫使 再次狀啓」, 「東學亂記錄上聚語」.
 全準準 供草
 강만길, 「한국근대사」(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강재언, 「한국 근대사상사 연구」(서울: 한울, 1983).
 김경재, “최수운의 侍天主와 歷史理解”, 「한국사상」 제 15집.
 김득황, 「한국사상사」(서울: 남산당, 1963).
 김용섭, “전봉준의 공초분석”, 노태구 편, 「동학혁명 연구」(서울: 백산서당, 1982).
 김용섭, “조선후기 농업문제와 실학” 「동방학지」 16.
 김의환, “동학사상의 사회적 기반과 사상적 배경”, 「한국사상」 제 6집 (1963, 8), 제 7집 (1964, 4).
 신기현, “조선조 평등에 관한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년 8월).
 신복룡, 「동학사상과 한국 민족주의」(서울: 민음사, 1981).
 신일철, “수운의 역사의식”, 「한국사상」 제 12집 (1978).
 오익제 편, 「천도교 입문」(서울: 천도교 중앙본부, 1981).
 용담유사.
 이돈화, “人乃天의 基本敎理”, 「開關」 제 4호.
 이돈화, 「天道敎 創建史」 제 1편 (서울: 천도교 중앙 종리원, 1933).
 임현희, “수운의 개혁사상”, 「신인간」 제 415호 (1984, 1).
 정약용, 「牧民心書」 第 6卷 戶典 6條, 4條, 「古典國譯叢書 38」(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조경달, “동학 농민운동과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 「갑신 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중운동」(서울: 청아, 1983).
 최동희, “동경대전(해설)”, 「한국명저대전집」(서울: 대양서각, 1973).